

복지부, 정밀의료사업단 설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개인맞춤의료 실현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밀의료 사업단'을 구성했다.

정밀의료는 개인맞춤 의료를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향후 5년간 국비 6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향후 5년간 ▲난치암 환자 유전변이에 맞춘 표적치료제 개발(국비 430억)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국비 201억)을 추진한다.

'암 정밀 진단·치료법 개발 사업단(단장 김열홍 교수)'은 난치암 환자 1만명의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그중 표적치료제 적용이 가능한 약 2,000명에게 개인맞춤 치료를 적용하고, 3건의 표적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길병원, 분당차병원 등 연구중심병원과 임상시험글로벌선도센터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재활병원협회, 회복기 재활 법적 기반 마련 '환영'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재활병원협회는 회복기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 12월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9월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한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는 (회복기)재활의료기관(재활병원)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을 착수기로 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미흡한 상태에서 현재의 병원과 제도 환경에서 재활치료는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회복기 재활환자가 유입되어 기능회복보다는 기능유지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한 인프라로서 재활병원을 지정·운영을 추진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 것이라고 평가했다.

루게릭병 및 척수손상 환자들에게 '복음'

루게릭병을 앓거나 척수손상을 당한 환자들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가 최근 식약처의 승인을 득했다.

글로벌데이몬파마(대표 김돈기)는 미국 시냅스 바이오메디컬(Synapse Biomedical)사가 루게릭병과 척수손상 환자들의 호흡부전치료용으로 개발한 의료기기 '뉴알엑스 디피엑스'(사진 NeuRx DPS, 횡격신경전기자극장치)에 대한 수입허가를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김돈기 대표는 "국내 1만여명의 루게릭병 및 척



수손상 환자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알엑스 디피에스’는 횡격막 근육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횡격막을 수축시키는 장치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이하 루게릭병)이나 척수 손상 (Spinal Cord Injury, SCI) 등으로 호흡부전을 겪는 환자들의 호흡을 돕고 횡격막 근육의 약화를 지연시킨다. 루게릭병은 신경근육계 난치성 질환의 일종으로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사지가 위축되고 서서히 온 몸이 마비되는데, 호흡근이 마비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척수 손상 환자 중 경추 손상의 경우에도 호흡근이 마비될 수 있다. 글로벌데이몬파마의 황선민 부사장은 “호흡보조기에 의존하고 있는 루게릭병 환자나 척수손상 환자들에게 이 ‘뉴알엑스 디피에스’를 이식하게 되면, 정상인처럼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질(QOL)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알엑스 디피에스’는 미국 시넵스 바이오메디컬사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및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케이스 메디컬 센터(University Hospitals Case Medical Center, UHCMC)에

서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지난 2008년 척수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 치료기로 미국 FDA 승인을 받는데 이어 2011년 루게릭병 치료기로도 FDA 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 등 25개국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15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이미 시술을 받았다

국내 비만시장, 잇단 신약 등장 경쟁 치열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삭센다’가 최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데 이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비버스사의 ‘큐시미아’도 9월 13일 알보젠코리아와 국내 판권계약을 체결했다.

큐시미아는 그 동안 국내 도입을 위해 접촉 중인 국내 제약사 몇몇 곳이 꾸준히 언급됐었지만 결국 알보젠코리아 품으로 돌아갔다.

큐시미아는 식욕억제제인 펜터마인과 항전간제인 토피라메이트를 결합한 복합제로 지난 2012년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다.

FDA로부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고혈압, 제2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체질량지수 27kg/㎡ 이상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 및 운동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승인 받았다.

최근 국내 허가받은 삭센다 역시 당뇨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로, 큐시미아가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을 경우 강력한 경쟁약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삭센다는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로 1일 1회 주사 투여해야 한다.

큐시미아는 벨빅이나 콘트라브보다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신약이 도입되는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점

을 감안할 때 큐시미아의 국내 시판허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2019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연세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증축 봉헌식 거행**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원장 이병석)은 지난 9월 12일 종합관 3층 우리라운지에서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증축 봉헌식'을 가졌다.



봉헌식에는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을)),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백광제 회장,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 서대문 소방서 서순탁 서장 등 외부인사와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 연세대학교 윤도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연세의대 한승경 총동창회장, 연세대 김병수 前 총장, 연세대 전표필 前 이사 등 주요 내부 인사가 참석했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맞춰 완벽한 초기 감염 진단 및 처단을 통한 환자 안전성 확보에 주력한 응급진료센터의 탄생에 깊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환자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이 바라는 한국응급진료센터의 모습과 진료시스템을 갖춘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가 ‘생명·진료·회복의 멈춤이 없는 응급실’이라는 모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는 기존 1,520㎡(약 460평)에서 3,300㎡(약 1,000평)으로 220% 확장된 전용면적을 보유했으며, 더욱 강화된 감염방지 대책과 과밀화 해소 시스템과 함께 응급질환자들이 24시간 언제라도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

**한국팜비오,
철중독증 치료제 국제학회에 첫 소개**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철중독증 치료제 헤모시룩스(성분명 데페라시룩스)가 최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 제약사 중 확산정으로는 유일하게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부상 중인 면역 및 세포치료 등 분야에 대한 특별 세션이 마련됐으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서 중요한 공여자 선택과 이식 전후 부작용 등의 문제에 대한 최신지견이 공유됐다.

행사에 초청된 연자 중 우베 플라츠베커 교수(독일 칼 구스타프 카루스대)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잠재적인 위험인자로서의 철분과다', 빙비프라카시트 교수(태국 마히돌 대학병원)는 '지중해성 빈혈의 관리'에 대한 강연에서 철분 킬레이트 제제의 중요성을 언급해 국내 의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팜비오 관계자는 “체내에 축적된 과다한 철분을 제거하는 헤모시룩스 확산정은 장기 수혈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철분 중독증 치료제로 위장관 장애를 유발하는 락토오스 등 부형제를 줄여 정제 크기를 엑스자이드 확산정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인 약”이라고 설명했다.

진흥원, '4차보건산업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차보건산업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을 리드하기 위한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본부의 명칭을 미래정책 지원본부로 변경하고, 보건산업 빅데이터, 스마트 헬스케어의 본격 추진을 위해 4차보건산업추진단을 신설했다.

R&D진흥본부는 기획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 조직을 6단에서 5단으로 통합했다. 기능별 조직(R&D기획 및 관리, 과제평가, 운영지원)으로 구성하고, R&D 성과관리와 과제관리를 일원화 했다.

산업진흥본부는 바이오헬스 기술사업화 기획기능을 통합(산업진흥기획팀),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창업촉진팀을 신설한다. 또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2018년) 추진을 위한 TF팀을 신설했다.

국제의료본부는 기존 지역(글로벌, 중동)센터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의료해외진출단, 외국인환자 유치단)함과 동시에 국제의료기획단을 신설해 사업 발굴·조정 기능을 강화했다.(2단 2센터 → 3단) 진흥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사·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1이사 4본부 2실 15단 2센터 체제에서 1이사 5본부 2실 15단으로 재편했다.

건양대병원 최첨단 CT '소마톰 포스' 도입

건양대병원(원장 최원준)은 30억원 규모의 최첨단



영상진단 장비인 '소마톰 포스(Somatom Force) CT'를 도입했다.

듀얼 에너지 시스템을 탑재한 지멘스사의 소마톰 포스는 0.3mm의 미세한 병변까지 발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 뇌, 심장, 복부 등 모든 영상의학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초저선량의 X-선과 소량의 조영제만으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CT장비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월등히 적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호흡을 멈추지 않고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아 환자뿐만 아니라 자주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중양 환자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처방 당일 검사가 가능함은 물론 그 동안 적체됐던 예약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의학과 황철목 과장은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만큼 이번 장비도입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